

강진군, 2024년 반값 강진 관광의 해 비전 선포

강진군이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군은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국가적 경기침체와 지방 인구감소에 따른 소멸이라는 위기 극복을 위해 강진군이 선제적으로 '반값 관광'이라는 파격적인 새로운 비전을 제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에는 강진원 군수를 비롯해 김승남 국회의원, 김보미 강진군의회 의장, 차영수 도의원, 향우와 언론인, 농업인, 푸조단체, 관광·숙박업 종사자, 여성단체, 노인회, 청년회 등 각계각층의 군민 700여 명이 참석해 성공 의지를 다졌다.

이날 선포식은 차량을 타고 강진을 찾을 때 첫 인상으로 다가오는 성전면 풀치재 터널 입구 아치 조

형물 제막을 시작으로 문을 열었다. 아치 조형물에는 'K-컬처의 원조 강진 비색 고려청자, 2024년 반값 가족여행 강진으로 오세요'라고 홍보문구가 쓰여 있다.

이어 '남도답사 1번지'를 명명해 준 유홍준 교수를 비롯한 재경강진군향우회장, 강진군 홍보대사 문희옥, 김의성 등 '반값 강진 관광의 해'를 격려하는 축하 응원 메시지에 이어 반값 강진 관광의 해 홍보영상이 참석자들의 다짐에 힘을 보탰다.

이후 강진원 군수가 직접 나서 반값 강진 관광의 의미와 내용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에게 소개했다.

강진원 군수는 2인 이상 가족 단위 관광객을 대상으로 여행경비의 50% 최대 20만원 지원을 통해 관광객 재방문 및 강진의 대외 인지도를 크게 높이는 게 주효할 것이라고 전제한 뒤 관광객 500만명 유치에 불을 당겨 지역경제 활성화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종옥 기자



강진군이 2024년을 '반값 강진 관광의 해'로 선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욱 속도를 낸다. 군은 강진읍 강진아트홀 대공연장에서 '2024년 시무식 및 반값 강진 관광의 해 선포식'을 개최했다.

무안군, 2024년 시무식

무안군(군수 김산)은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2024년도 시무식을 하고 갑진년 새해 힘찬 출발을 다짐했다.

오전 8시 30분 충훈탑 참배를 시작으로 시무식에서 2024년 신년사, 직원 상호 간 새해 인사, 공직자 청렴실천 결의, 군정다짐 퍼포먼스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김산 군수는 신년사에서 "2024년 무안군은 새로운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척실히 실행해 군민들에게 더 큰 희망을 심어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이를 실행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희망·배려·존중 등 무안형(形) 도움복지 강화 ▲농촌 지역과 도시지역의 상생 속에 균형 발전 ▲지역특화자원으로 무안의 미래비전 조성 등 군정 주요 운영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통해 안정적인 군정 운영으로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며, 미래신성장 동력 발굴로 비약적인 성장 발판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군정을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변함없는 성원을 당부했다.

/고민재 기자

영암군, 공공예금 이자수입 392% 증가

영암군(군수 우승희)이 지난 2023년 일반회계 공공자금 운용 결과, 영암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부분에서 55억 원을 달성했다.

이 금액은 지난 2022년 14억 원 대비 392% 넘게 증가한 수치로, 영암군 역대 최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액에 해당한다.

동시에 지난 2023년 영암군이 한 해 동안 징수한 지방세외수입 237 억 원의 23.2%에 달한다.

지난해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는 중앙정부의 보통교부세 감소 등으로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자수입 증대는, 가뭄에 단비 같은 재원으로 쓰였고, 자주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영암군의 분석이다. 덧붙여 이런 결과는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지속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도 일부 있지만, 군의 가장 큰 재원인 교부세가 감소한 상황에서 효율

적인 자금운용으로 난관을 극복해낸 것이라는 평가다.

영암군은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지난해 초 여러 지자체를 방문해 우수 재정 시책을 배워온 다음, 영암군의 실정에 맞게 도입했다.

아울러 각 실·과·소 예산·서무 담당자 연설회의를 열어 이자수입 증대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협조도 이끌어냈다.

영암군 이자수입 담당부서인 정수팀은, 지난 2022년 세입·세출 구조를 분석해 정기예금 만기일을 지출예정일에 맞게 설정해 중도해지를 방지하고, 보통예금 평균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도 병행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밟 빠른 대처로 목표액인 60억 원을 반드시 달성해 영암군민을 위한 일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문수 기자

목포, 비상대비훈련 유공평가 국무총리상

목포시가 행정안전부 주관의 '2023년 비상대비훈련 유공 평가'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번 유공기관 선정은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를 대상으로 1차 행정안전부 예비심사, 2차 대국민 공개검증, 3차 행정안전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됐다.

올해 해당분야로 정부포상을 수

상한 자치단체는 목포시를 비롯한 5개 지자체로 전·평시 비상사태를 대비한 충무훈련 및 을지연습 등을 우수하게 실시한 기관에 수여됐다.

목포시는 훈련 전 과정에 대한 단체장의 높은 관심도 및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시민홍보를 통한 훈련분위기 조성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내실 있는 훈련을 실시한 점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 6월 충무훈련 간 실제 훈련 시 단체장이 훈련 현장에 직접 참여해 유관기관간 토의 등을 통해 개선사항 등을 도출했고, 민간선박을 실제로 동원해 실전과 같은 완벽한 훈련을 통한 변화된 안보 위협 상황에 대응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대비훈련을 통한 위기관리 역량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박성태 기자

출간했다.

드론을 활용해 자연의 모습을 한 장의 사진 속에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며, 다수의 전시 경력과 대한민국 국제포토페스티벌 코리아 포토상 등의 수상 경력이 있다.

올해 4월 티립 축제 기간에 임자도의 바람 사진전을 개최할 예정이며, 앞으로 매년 2~3개의 섬을 활용해 작품집을 내고 전시회를 열 계획이다.

/장홍근 기자

함평군, 전남도 주관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우수기관 표창

함평군이 전남도가 주관한 '2023년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군은 2023년 코로나19 확진자 조사서의 높은 입력률을 통해 확진자 발생 시 응급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했으며 FETP를 비롯한 감염병 대비·대응 교육을 적극적으로 수료해 감염병 관리자 전문성을 높였다.

이와 함께, 고위험군 대상 코로나19 예방접종도 추진해 높은 접종률을 보여 코로나19 예방에 앞장섰다.

또한 경로당 순회 감염병 예방 교육을 실시해 손씻기 교육, 손소독제 비치 등을 강조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였고 경로당 이용자 결핵 전수 검진을 실시해 결핵환자 조기 차단에 기여했다.

/이문수 기자

"무안공항과 연계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발언

무안군민 버린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즉각 사과하라!

광주 전투비행장 무안 이전 반대 범대위 · 무안군 의회 · 전남도의원(나광국·정길수)